

오비맥주 카스 '진짜 여름 스넵' 모델로 박명수 발탁

오비맥주 카스가 '진짜 여름 스넵' 캠페인 모델로 개그맨 박명수를 발탁했다. 박명수는 최근 강원도 양양 죽도 해변에서 카스가 선정한 1호 포토그래퍼인 '스넵퍼'로 활약하며, 해변가에서 여름을 만끽하고 있는 소비자를 직접 촬영했다. 초상권 동의를 얻은 소비자 사진과 신나는 여름 음악을 활용해 '진짜 여름 스넵'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바이든 美 대통령 화상면담 통해 협력 방안 논의



26일(현지시간)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화면)과 화상면담을 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바이트 오른쪽).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 29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 | AP·뉴시스

SK, 미국에 29조원 투자...바이든 “땡큐” 연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신규 투자 SK 성장동력·美 일자리 창출 원원 최 회장 “세계경제 주도 힘 모을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6일(현지 시간) 한국시간 27일 오전 3시15분) 미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면담을 갖고 향후 대미 투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이날 “SK그룹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분야를 비롯해 미국에 220억 달러(약 29조 원)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배터리 분야에서 70억 달러(약 9조1735억 원) 규모 투자에 더해 거의 300억 달러(약 39조33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투자는 연구개발(R&D) 비용과 반도체 패키징 팹(Fab) 등에 사용되며 일부는 전기차 충전시스템, 그린 수소, 배터리 소재 등 녹색 에너지 산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220억 달러 투자 최 회장이 22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신규 투자를 포함해 300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 계획을 밝힘에 따라 향후 한미 양

측의 경제협력력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SK의 대미 투자가 미 핵심 산업 인프라와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최 회장과 바이든 대통령간 면담에는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유정준 SK 북미 대외협력 총괄 부회장 등 SK 측 인사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알리자이디 백악관 환경 어드바이저 등 미국 측 인사가 배석했다.

최 회장은 “한미 양국은 21세기 세계 경제를 주도할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협력은 핵심 기술과 관련한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K는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더불어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함께 변형할 수 있다는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SK그룹이 2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단행할 경우 미국 내 일자리는 2025년까지 4000개에서 2만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면서 SK

그룹의 투자에 대해 세 차례나 “땡큐”를 연발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최 회장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SK그룹의 투자는 미국과 한국이 21세기 기술경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투자”라고 평가했다.

●SK 성장동력 확보, 미국은 일자리 창출 추가 투자금 중 150억 달러(약 19조 6000억 원)는 반도체 R&D 협력과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투자된다. 또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20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 첨단 소형 원자로 등 그린 에너지 분야에 50억 달러(약 6조55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단행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이번 반도체 R&D 투자는 단순히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지 않고 SK하이닉스의 기술력 강화로 이어져 결국에는 메모리 등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K그룹이 전기차 및 그린 에너지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SK와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

국 시장 진출과 국내 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SK그룹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미 행정부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한미 양국의 대표적 ‘윈-윈(Win-Win) 경제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SK그룹은 2026년까지 계획한 전체 투자규모 247조 원 가운데 179조 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는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지난 5월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해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반도체(Chip) 등 이른바 ‘BBC’ 산업에 5년 간 24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전체 투자규모의 70%가 넘는 금액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반도체와 같은 핵심 생산기반과 R&D 기반이 국내에 있는 만큼 국내 인프라 구축과 R&D 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SK 관계자는 “월선 규모가 큰 국내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해외 투자도 함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대미 투자 계획은 물론 이미 확정된 국내 투자 역시 흔들림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캠핑 나온 CEO들” 야놀자와 현대카드가 손잡고 국내 첫 여행·레저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를 출시한다. 이와 관련해 25일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왼쪽),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캠핑 텐트 앞에서 포즈를 취한 두 CEO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눈길을 끈다.

사진제공 | 야놀자

조선 왕실의 유물 ‘보록’ 환수 라이엇게임즈 여섯 번째 지원

8월 중 ‘나라 밖 문화재’ 전시회 통해 시민 공개



조선 왕실의 유물 ‘보록’(寶錄·사진)이 영국에서 돌아왔다. 라이엇게임즈의 여섯 번째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성과다.

라이엇게임즈는 27일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한국 의집에서 언론공개회를 열고, 보록의 국내 환수 소식을 전했다. 보록은 조선 왕실 인장인 ‘어보’를 넣는 ‘보통’을 보관하는 외함이다. 당시 문화와 생활양식을 확인할 수 있고,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환수된 보록은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 전시회를 통해 8월 중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국외소재문화재단은 지난해 정보를 입수해 소장자를 설득하는 과정과 전문가들의 평가와 실견을 거쳐 매입에 성공했다. 라이엇게임즈는 이런 환수 절차 전반을 지원했다.

이번 보록 환수는 라이엇게임즈가 지원 참여한 여섯 번째 국외 문화재 환수다. 라이엇게임즈는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사회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석가삼존도’를 시작으로 2018년 ‘효명세자빈 책봉 축적’, 2019년 ‘적암선생문집 책판’, ‘백자이동궁명사각호’, ‘중화궁인’ 등의 환수를 지원했다. 국외 문화재 환수는 민간 기업 지원 사례가 드문 분야로, 10년째 장기적으로 국외 문화재 환수를 돕고 있는 기업은 라이엇게임즈가 유일하다.

구기향 라이엇게임즈 사회환원사업 총괄은 “오늘날의 문화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우리 문화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10년의 노력을 이어왔다”며 “항상 우리와 함께해주는 플레이어 여러분께 또 한 번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말했다.

한편, 라이엇게임즈는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문화재청과 후원 약정을 맺고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 국외소재문화재단 등 관계 기관, 협업사들과 함께 연 단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라이엇게임즈가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기부한 지원금은 68억7000만 원으로, 이는 문화재청과의 민관협력 사례 중 최고 금액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파리바게트, 8월 파바데이 프로모션



SPC 파리바게트가 8월 ‘파바데이 프로모션’(사진)을 진행한다. 8월 1일 총 구매액이 1만5000원 이상 시 3000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아이스캔디 1+1 혜택 쿠폰’ 프로모션도 연다. 쿠폰은 해피엠퍼와 파리바게트 공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선착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8월 1~5일 동안 프로모션 제품 포함 1만 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혜택 쿠폰을 준다. 프로모션 제품은 ‘아다지오 커피빈’과 ‘아다지오 샌크림 커피빈’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현대차·기아, 달 표면 탐사 모빌리티 개발 추진

국내 6개 연구기관과 협의체 구성 “우주시대 인류의 진보에 기여할 것”

자동차 회사에서 로보틱스, UAM(도심항공교통), AAM(미래항공모빌리티), AI(인공지능)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모빌리티 솔루션 회사로 진화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기아가 마침내 그 비전을 우주까지 넓힌다.

현대차·기아는 달 표면 탐사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항공·우주 역량을 보유한 국내 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기아 연구개발 본부장 박정국 사장을 비롯해 한국천문연구원(KASI) 박영득 원장, 한국전자통신연

구원(ETRI) 박종현 부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김현준 연구부원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이상률 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정지영 부원장,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임광훈 경영지원본부장 등 협의체에 참여하는 여섯 개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달 탐사 모빌리티에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모빌리티를 달에서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기아는 회사의 미래 기술 역량을 총 집결해 협의체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다자간 협약은 우리나라 우주 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총 동원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을 융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달 표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2에서 공개한 현대차의 로보틱스 비전 이미지. 사진제공 | 현대차

탐사 모빌리티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모빌리티 동체 개발뿐만 아니라 모빌리티에 탑재되는 과학 탐사 장비,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우주 통신 기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우주 시대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쓰고, 나아가 인류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휠라, 해양 보호 메시지 ‘비치코밍 컬렉션’ 선포



휠라가 여름 패션에 해양 보호의 메시지를 담은 ‘비치코밍 컬렉션’(사진)을 내놓았다. 해변을 정화하는 행위를 일컫는 비치코밍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그래픽 반팔 티셔츠 2종과 가방 1종으로 구성됐다. 티셔츠의 경우, 면 75%에 페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원사인 리젠을 25% 포함했다. 티셔츠 뒷면에는 해변에서 집게로 빈 병을 줍는 이들의 모습, 한 손에 빈 병을 하나씩 들고 줄지어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등을 그려낸 그래픽으로 담았다. 비치코밍 가방은 플라스틱 페페트병에서 추출한 재생 폴리에스터 원사 리프리블을 100% 사용한 에코백이다. 소재 특성상 가벼운 것이 특징으로, 일상 외출 시는 물론 여행 시 보조가방으로도 유용하다.